접촉선택의 순간 우선멈춤

(호세아 5:1~15)

1.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2.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접촉선택의 순간 우선멈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접촉선택의 순간 우선멈춤'
앞장에 이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호세아서에서 드러나는 사상의 핵심은 영적 음란함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연결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선택은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접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접촉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우선멈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우선멈춤의 구간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판단하기에 앞서 무조건 우선멈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상황과 접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 묻지마 접촉을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마주대하고 접촉하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마음의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묻지마 접촉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멈춤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묻지마 접촉이 반복되는 삶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오히려 마음이 우선멈춤을 하고 바른 접촉을 이룬다면 삶을 무척 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여있는 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문제 재정문제 인간관계문제 등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든 이것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바른 접촉을 해나갈 수 있다면 삶은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접촉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일어나는 긍정적 효과는 말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

지는 것들에 대한 습관적 마음의 접촉이 지속된다면 삶은 자꾸만 어려워져갑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복된 메시지를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선민 북 왕국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고 하였고 2절에서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북 왕국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반역자가 되고 살육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는 말씀에서 드러난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의 그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미스바라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곳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 있는 숲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다볼도 마찬가지로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써 요단 서편에 있는 다볼 산 근처를 일컫는 것입니다. 미스바나 다볼은 사냥터로 유명하였기에 올무나 그물이 언급된 것입니다.
반역자가 살육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인간 사냥꾼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족이 백성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또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과 왕족을 사냥감으로 여깁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자의 상태가 되고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살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사냥감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접촉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세상에 접촉함으로써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반역자가 되자 살육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린 반역자들은 인간 빨대와 다름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 마음의 채울 것을 강요합니다. 타인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사냥합니다.
이것은 흔히 갑질로 대표되는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에 의한 권력행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이용하려드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유익이 될 것을 찾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왕이나 혹은 사장님 같이 권력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무자비한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담겨 있는 마음가짐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인을 욕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들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사냥터가 되는 것은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접촉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마음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부부간에도 부모자식 간에도 사냥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마음의 유익을 얻고 채우려는 사냥터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그것이 내 마음에 보다 큰 기쁨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선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마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선민 각자가 하나님과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몸으로 관계하는 대상들로부터 마음의 유익을 찾지 않게 되고 타인을 사냥감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이때에 타인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배려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예화가 기억납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면 모두 양팔을 쭉 펴서 고정해놨다고 합니다. 이제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양 팔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음식을 집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남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떠서 남의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나는 배고픈 사람을 떠먹이고 다른 사람은 나를 떠먹이며 모두가 함께 배부르게 산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기대하셨던 본래 모습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인을 살육하는 사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배반을 음행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배반했기 때문에 살육죄를 저지르는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위한 유익과 기쁨을 찾는 살육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졌기 때문이고 그렇게 된 원인으로 음행과 더러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음란한 마음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연결시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멜을 통해 선민들의 영적 음란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음란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음란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을 때에 앎은 이미 살펴보았던 '야다'

라는 동사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과 접촉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체험적 앎이 바로 '야다'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얻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앎이 없는 상태를 음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에게 마음접촉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허용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세상의 온갖 대상과 마음의 접촉을 이루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청결함이란 곧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흰색의 영광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흰색 실크 블라우스처럼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접촉해야만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실크 블라우스에 된장찌개 국물이 묻어서 더러워진 모습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본래 된장찌개는 입에 넣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실크 블라우스에 된장찌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러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장찌개 국물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김치찌개 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물이 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져다 붓고 살아갑니다.
제가 미군부대에서 복무할 때에 미군들이 해피스모크를 피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연기 한 모금이 허비될까봐 폐부 깊은 곳까지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접촉시킬 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녀와 마음이 접촉하면 한 모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녀의 상태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을 마음으로 다 빨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음란함의 모습입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세상과 접촉하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느낌을 받아들여서 채우게 된 상태가 음란함인 것입니다.
앞서 본 4장 6절에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등지고 번성하는 상태에 접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5절에서는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접촉한 일들이 잘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접촉한 일들이 잘 안 풀리면 비굴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접촉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전에 마음으로 접촉한 대상으로부터 알게 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민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인생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를 들어 직장에는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 채움을 위해 선택을 해야 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과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남들과는 다른 선택지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른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해 습관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 선택의 정체를 생각해볼 우선멈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똑같은 회사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과장님에게는 수많은 상황과 사실들 중에서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선민들에게만 하나님을 선택할 특권이 주어지고 동시에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하던 장면을 생각해봅니다. 다윗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달랐던 점은 하나님께 마음을 접촉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선민의 특권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마음을 접촉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접촉해 있는 골리앗으로부터 공포와 두려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살 밖에 되지 않았던 다윗은 선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마음에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골리앗과 대치하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접촉시켰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골리앗을 바라보자 그는 돌멩이 하나로도 무찌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이 접촉 할 대상을 선택할 때입니다. 마음을 굳이 아픈 몸에 접촉시킨다면 그로부터 주어지는 감정은 우울함과 고통스러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접촉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접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 안에서 아프다는 사실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습니다. 재정상황이 안 좋으면 그 사실에 마음을 접촉한 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재정상황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100억을 가져도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상황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접촉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접촉을 위해 당신 자신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상황에 마음을 접촉함으로써 주어지는 느낌을 받아들임으로 음란함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음이 접촉해서 접촉한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울해하든 기뻐하든 음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에 접촉한 뒤에 그것으로부터 받은 느낌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설령 그 대상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원수에게 접촉시켜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을 접촉하고 나서 원수를 바라보면 원수도 달리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도 돌로 치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하늘과 접촉이 이루어지니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선멈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와 접촉하기 전에 우선멈춤을 하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인격이 질그릇이라면 보배는 곧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오장육부가 육체 속에 담겨있어야 하듯이, 내 마음의 바른 접촉을 위해서는 인격 안에 항상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세상과의 접촉을 막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이어지는 8~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 접촉함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돈 벌려고 수고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했던 모든 수고들에 비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멈춤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과의 접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접촉의 순간 십자가를 통한 우선멈춤을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육체를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다님으로 그 동안 습관적 자동적으로 접촉해왔던 세상에 대한 접촉이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접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

낌 속에서 이 세상을 관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